

# 고은 불교 대하소설

## 동행

**바** 워너비가 자연스럽게 벽을 만들어 주어서 불이와 합두만이 바다 쪽으로만 확 열려진 낙조의 끝무렵을 바라볼 수 있었다. 불이는 피리를 손에 관재 바로 옆의 합두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말하는 것처럼 바다를 향해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무욕도에 오기 전부터 이 세기란 우리가 사는 세계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짐작을 넘어서 하나의 신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서방정토니 지옥이니 육도(六處) 운회 따위를 귀에 쟁쟁하게 들을 때마다 도리어 지난 날의 내 신념보다 장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

불이의 앞얼굴을 마쳐 그 얼굴의 한 군데라도 부리로 찍어 먹을 듯이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때 불이도 현현히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마주 바라보았다. "다른 세계로 가십시오."라고 그가 목청을 내어 말하였다.

"가는 것은 이제 정해진 일입니다. 굳이 먼저 가야 할 까닭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이승에서 살 때까지 사는 동안 마음 공부를 하다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승에서의 재생(再生)이나 깊은 참회를 통한 경신(更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공부(功)가 다른 세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전생의 석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하는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서원대로 되기보다 우리가 남긴 업장에 의해서 우리 서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 때가 다 되었습니까?”

마침 종이 울렸다. 합두가 먼저 갔다. 그녀는 요즘 그녀의 요청에 따라 후원의 취사나 살거지 등의 일을 번갈아가며 하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며칠동안은 후원 일에 손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저녁공양은 아주 간단하였다. 밥의 정진을 위해서 불안을 가득 채우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밥 안고긋과 된장국 뿐이었다.

이런 시간 때에는 한 시간쯤의 소요 시간을 두고 있다. 게다가 산에 오르거나 바닷가 바위나 모래밭을 거닐 수 있는 것이다.

불이가 다시 아까의 바위너셀 쪽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 합두가 먼저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아!" 하고 불이의 입에서 짧은 감탄사가 나와야 하였다.

"저승에는 이런 바다가 없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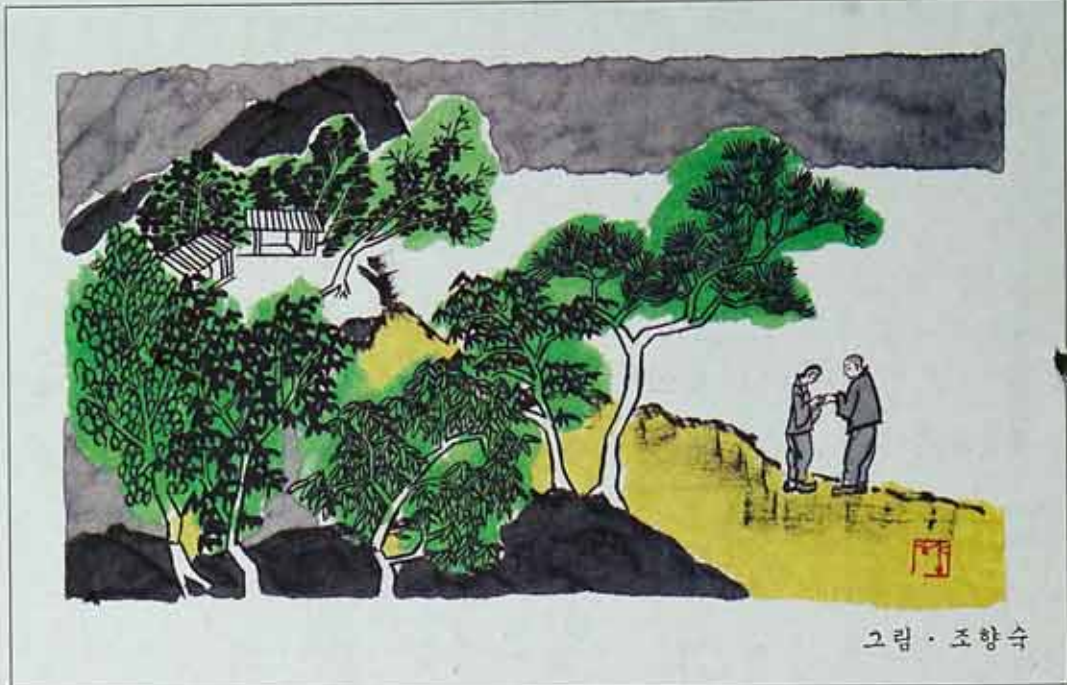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36

게 되었지요."

이 말은 합두의 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잠시 멈추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귀만 열리고 있었다.

불이가 말을 이었다. 여전히 바다 쪽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라고 그는 두사람이 함께 있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지금 저 바다 너머로 헤가 지는 데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헤가 지는 쪽으로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먼 나날의 서쪽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계가 이런 바에는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와 인간이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과 공포 때문에 현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인간의 진화(進化)가 무지(無知)로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

"나는 오래동안 그 때문에 꿈 속에서도 우주의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적이 많습니니다. 어린 시절의 일이었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나를 의인(醫人)에게 데려가셨지요. 내가 혹시 실성(失性)한 사람은 아닌가 해서..."

"..."

"바로 이런 것들이 나를 시를 읊는 일로 살게 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니 이제는... 이곳의 종이 되게 한 바이겠지요."

"다른 세계 없이 어찌 이 세계가 있었어요?"라고 합두가 한 마디를 먼저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강하였다.

가모니불이 도솔천에서 미륵보살과 함께 살고 있을 때 미륵보살이 내려올 사바세계를 그가 먼저 사바세계에 태어나 증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이룬 것은 때를 리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런 보살은 아닐지언정 나 하나를 위한 공부에도 내가 이승에 있기보다 다른 세계에 새로 태어날 서원을 실천하는 것은 내 의지의 자유입니다."

"그토록 다른 세계를 원하십니까? 불이 스님."

"원합니다."

"그것은 이승에 대한 어떤 비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는 다른 세계를 꿈꾸는 것일뿐이 지극의 나입니다. 나라는 것의 뒷면 바를 수 없이 때려 부수어야 하는 일이 끝 다른 세계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스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대한 사명(使命)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승을 버리고 어찌 임사(臨死) 저승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저승도 이승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불이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그에게 할 말이 아직 남아있다. 알았든지 그의 말은 합두를 설득할 만한 확실성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말을 쏟아내는 일은 말의 진실을 줄이는 것이 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하가야 다른 세계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 증생도 이승에는 있는 것이겠지요" 라고 합두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모처럼 미소를 머금었다.

"그만 일어십시오. 저녁 약석(藥石-夕

### “저도 불이 스님과 함께 다른 세계로 가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는 그 가슴 떨리는 결의야말로 친애의 첫 걸음이라 해도 부족한 것이었다

"이런 바다보다 더 엄청난 바다가 있는 지도 모릅니다. 들은 종말(終末)이지만 이승에서 다른 세계를 말하는 것은 그러나 이승의 그것을 확장(擴張)한 것이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옛날의 구사론(具身論)이 그리고 있는 수미산 말의 세계도 사바세계가 그안의 작은 세계이기도 하지만 사바세계의 산과 바다와 다른 것이 아닐듯 합니다."

"그런 세계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그곳으로 건너는 의식이 있었습니까? 그저 죽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증생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하는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서원대로 되기보다 우리가 남긴 업장(業障)에 의해서 우리 서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

있었다. 과도 한 자락이 저쪽 바위 끝을 쳐서 그쪽에 있는 인담의 아랫도리를 찍었다.

두사람은 인담쪽으로 갔다. 그들은 처음에는 당황하였다. 그러다가 아주 당당해지고 있었다.

"두 스님의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엿듣는 것이겠지요."

그때 합두가 말하였다.

"인담 스님께서서는 워너비와 떠나시겠습니까? 잘치" 라고.

그러자 인담이 노여움을 일으켰다.

"아니... 아무런 말이나 함부로 내뱉는 것이 입이요? 이 무슨 망발이요?"

"망발이 아닙니다. 워너비 스님이 영험(靈驗)이 많고神通(神通)의 힘을 가지신 분임을 압니다만 저도 그 스님만한 집착은 할 줄 압니다."

이런 말은 그동안의 합두로 보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아무튼 공방으로 갑시다" 라고 인담이 그들에게 간절히 말하였다.

세 사람이 갈매정사 관방에 가까이 갔을 때는 이미 저녁 예불을 끝낸 뒤였다. 워너비가 문을 열어둔 방 안에서 수월 수월 파연 파연 가느라 있었다.

우리가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며 한 마디 중얼거렸다.

"무욕도는 이제 사바세계의 섬으로 돌아가 겠구나."

하지만 그녀와 한동안의 파격(破格)을 일삼던 세 사람의 남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밤 좌선(坐禪)이 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룬 마음이 아닌데도 각자 제 자리의 방식으로 가서 자취(自取) 있었다. 하지만 합두에게는 어떤 무념(無念)의 상태도 누릴 수 없는 곤경(困境)-많은 생각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앞으로 그녀가 가야 할 다른 세계로의 역경을 미리 익혀가는 것이었다.

하늘의 거울이 나타났다. 그 거울은 정파리(淨玻璃)라는 수정(水晶)으로 된 거울이었다. 그렇다면 그 거울이 있는 곳은 영마(靈馬)의 세계가 아닌가.

그들은 어느덧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처음으로 손을 잡는 그 가슴 떨리는 결의야말로 그것을 애욕(愛慾)의 첫 걸음이라 해도 부족한 것이었다.

"아 합두 스님!" 이라는 불이의 감격적인 이름 부르는 차라리 입속에서 나올 수 없었다.

도소리 가운데 그들은 어떤 말도 더 이상 나올 수 없이 서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부동(不動)에 서로 부둥켜 안을 수도 없었고 서로 끌어질 수도 없었다. 이미 그들은 마음 속에서 이승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때였다. 인담이 그들의 바위 뒤에서 이제까지의 일을 다 듣고 있다가 "음!" 하고 인기척을 보였다. 그래서야 두사람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현실로 돌아와

# 韓國佛教美術大典

### 우리 민족과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이 책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제38회 출판문화상에 빛나는 한국불교미술대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일본 경도대학 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우리문화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한국 불교미술 집대성.
- 팔만대장경 이래 한국불교문화사 최대의 불사.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불교미술
- 국문판에 이어 일어판, 영문판도 곧 이어 발간.
- 한국출판사상 보기도문 대기책에 최고급 인쇄.

- 8할판(26.5×36cm)의 초대형크기
- 각권 312~376페이지의 웅물러 인쇄
- 본문 180g의 스노우화이트지 사용
- 호화양장제본에 날권케이스, 금박 포플로스
- 정가 630,000원(전7권)

### 韓國佛教美術大典 重要內容

- ① 佛教彫刻: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 조각사와 함께 컬러도판을 실고 도판해설을 하였다.
- ② 佛教繪畫: 한국불교화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컬러도판과 함께 도판해설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 ③ 佛教建築: 사찰의 건축과 함께 불탑, 부도, 불비 등 불교건축을 논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 ④ 佛教工藝: 불교의 공양구, 의식구, 사리기, 기와 등의 불교공예품을 서술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 ⑤ 現代佛教美術: 오늘날에 제작된 대표적 불교미술품을 체계적이고 대표적인 불교미술가를 작품과 함께 소개하였다.
- ⑥ 世界의 佛教美術: 우리나라와 함께 불교미술이 발달된 인도, 중국, 일본, 몽고, 동남아 제국의 불교미술의 컬러도판으로 소개하였다.
- ⑦ 佛教美術資料集: 불교미술에 필수적인 불교미술용어사전과 함께 불교미술품의 실측도와 각종 문양을 실었다.

현대불교 구독자 시은행사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전권 630,000원을 490,000원에 현금 및 할인 분할해 드립니다. 법보시용으로 최적입니다.

주문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부  
TEL: (02)737-0695  
FAX: (02)737-0696

공급처: (주) 한국색채문화사  
TEL: (02) 333-0051  
FAX: (02) 338-7781